

문화

# 동아리 → 농촌계몽 → ‘취업’ 학원行 → 해외연수 → 지금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① 20년대 우리신문에 실린 각종 외국어학원 광고. 70~80년대에도 영어학원의 인기가 대단했다  
③ 80년대 학내에서 컴퓨터 특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 모습      ④ 방학 중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생들

매일 샤워하고...  
매일 속옷은 갈아입으면서...  
이불은 왜?

이불의 пам과 각질은 진드기의  
좋은 먹이가 되어 자주 빨아줘야 합니다.  
매일 갈아입는 속옷처럼~

## 대학생의 방학 변천사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 대학생에게 방학은 어떤 시간일까? 주변에서는 여행을 추천하지만 막상 떠나기엔 비용이 부담된다.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니 그 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취업에 유리할 것 같다. 취업을 생각하자면 학기 중 시간이 없어 못했던 대외활동도 하고 싶어진다. 아차! 내 학점. 다음 학기에도 'B0'의 폭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전공 공부도 미리 해둬야 하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고민하다보면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오늘처럼 개강을 맞이한다. 어마어마한 자유가 주어지지만 '의식의 흐름'대로 보내기엔 부담스러운 약 두 달여의 시간들. 그래서 우리신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대학생이 '방학 기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옛 신문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 대학생에게 있어 방학이 어떤 의미였고 또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다.

1960년대 대학생의 방학은 '대학생'하면 떠오르는 고전적인 이미지에 부합하는, 꽤나 낭만적인 모습이었다. 이 시기의 대학생은 학업만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학문을 놓고'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보고 여행을 하거나 농번기에는 고향의 농사일 도와주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활발했던 것은 방학 중 동아리 활동이었다. 1967년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방학 중 한창 클럽활동이 인기지만 그 중에서도 산악부, 등산부, 계몽반이 으뜸'이었다고 한다(1967.12.11.).

### 60년대 방학은 여가활동 위주 70년대 방학은 농촌계몽활동 활발 80년대 방학은 취업 사교육 인기

60년대의 대학생이 방학에 활발한 여가활동을 수행하며 휴식시간을 보냈다면, 산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던 70년대부터는 농촌계몽활동이 방학을 맞은 대학생의 주요 활동이 됐다. 특히 1969년부터 문교부의 대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후원이 시작되면서 이 농촌계몽활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되었다. 1972년 경향신문이 당시 대학생 방학 봉사활동 내용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새마을 운동의 현장에 찾아가 일손을 돕거나 글을 알려주는 등의 활동을 주로 했다고 한다.

한편 이 시기에는 외국어 공부가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외국어 공부와는 목적이 사뭇 달랐다. 1972년 발행된 우리신문에 실린 당시 법학과 2학년 박선웅 동문의 인터뷰 중 일부를 보자.

“국내에 결핍돼있는 학술서들을 해외서적으로 읽지 않으면 전공하는 학문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외국어실력은 항상 강조되고 있는 학생의 무기이다. 방학은 그것을 연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취업을 위한 학원의 인기가 치솟았는데, 방학이면 학원에 비해 수강료가 저렴한 학내 방학 특강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1984년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각 대학별 컴퓨터 특강에 수강신청을 한 학생이 방학 전에 비해 30% 늘었다. 1984년 당시 우리학교 전자과 3학년이었던 박정순 동문은 “컴퓨터 사설학원은 한 달에 20,000원정도 했었는데 방학 때 학교에서 특강으로 들으면 9,000원정도 했었다. 거의 두 배 이상 수강료 차이가 나니 학생들이 방학만 목 빠지게 기다려서 특강을 들곤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컴퓨터 자격증 외에도 외국어 능력이 취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었고, 1989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이후에는 해외연수 붐이 일기도 했다. 1991년에 동아

리서치가 서울지역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1.9%의 대학생이 방학 중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해 당시의 ‘해외연수 붐’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후 불어 닥친 경제위기 한파로 해외연수는 대학생의 방학에서 점차 사라져갔다. 대신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중요한 방학 중 활동으로 떠올랐다.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종종 했었다는 김정수(경영 1999) 동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방학에는 하루 10시간씩 여른조사하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 여학생들은 주차단속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도 여학생연수가 필수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부모님께 등록금 외의 부담을 더 드리는 게 (마음에)걸려 돈을 벌자는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

### 당장 해야할 일에 밀린 가장 하고 싶은 일 여행, 독서보다 취업준비가 우선

경제위기 시대의 대학생들이 가계 부담을 느끼며 방학을 당장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았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고 경제가 점차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대학생들은 다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즉 취업 대비에 신경을 쏟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는 점차 취업에 여학실력과 컴퓨터 자격증 외에도 다양한 스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때문에 방학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하려는 대학생들이 많아졌다. 한국경제는 2002년 발행된 신문을 통해 겨울방학 중 모 외국계 회사의 방학인턴사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는 김소영 씨의 사례를 통해 ‘대학가 방학풍속도는 취업준비 현장실습기간’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방학풍속도’는 2016년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대학생들은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각종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하고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해 대외활동과 인턴을 필두로 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신문이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우리학교 재학생 1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방학 중 자격증 공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반면 방학 중 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8%에 그쳤다. 대학생의 상징이던 ‘배낭여행’이 취업부담에 의해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잡코리아가 최근 4년제 대학생 1,013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계획’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해외 배낭여행’이 가장 해보고 싶은 일 중 1위로 뽑혔지만 당장 해야 할 일로는 ‘취업준비’가 1위로 뽑힌 바 있다.

### 여전히 ‘학문탐구’ 취업준비에 밀려 방중 전공서적 독서 비율 13%

대학생의 본분이라 일컬어지는 ‘학문탐구’도 취업준비에 밀리는 양상이다. ‘방학 중 책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56%였다. 특히 방학 중 책을 1권 이상 읽은 응답자 중 전공서적을 읽었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이렇듯 최근 대학생 방학은 대부분이 취업을 위한 시간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대학생 개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시류에 따라 주체성을 잃고 취업만을 위해 방학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학 때 만큼이라도 잠시 쉬며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